

부채액계층별 금융자산 구성 비교

허경옥 (성신여대 가족소비자학과 교수)

최미향 (성신여대 가족소비자학과 석사과정)

가계는 대출을 통해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이전시켜 사용함으로써, 생활수준 향상을 꾀하고 생활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기간간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이 지나쳐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을 넘어서게 되면 가계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가계부채는 저축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지출을 균형 있게 해주는 수단인 동시에, 자산과의 상호의존성을 통해 가계경제구조를 변화, 발전시키는 수단이다. 즉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는 자산을 축적하고, 부채를 보유한 가계는 부채를 감소시키거나 새로운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가계가 특정 자산을 얻기 위해 부채를 보유하고, 이 부채가 바로 특정 자산이 된다는 점에서 자산과 부채간의 상호의존성을 설명할 수 있다(Bryant, 1986). 지난 수년간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을 목적으로 투자성 부채를 보유하는 가계가 증가함에 따라, 가계 자산과 부채구성의 상호관계가 학문적, 실용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투자성 부채는 상당 부분 부동산자산 보유를 위한 부채로 구성되지만, 한 가계 내에서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증감은 상반되는 관계를 가지므로, 부동산 뿐 아니라 금융자산과 부채구성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2006년 가계자산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 가계를 무부채 가구와 부채보유 4분위계층 가구의 다섯 집단으로 구분한 후, 부채액계층별로 금융자산의 구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전체 8,275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부채액계층에 따라 무부채가계(n=1228), 1분위(n=1765), 2분위(n=1762), 3분위(n=1761), 4분위(n=1759)로 분류하여 부채액계층별 금융자산규모 및 구성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금융자산포트폴리오에는 수시입출금 저축, 적립식 저축, 저축성보험, 목돈예치 저축, 주식·채권, 갯돈불입금, 빌려준 돈이 포함되었으며,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액계층에 따른 금융자산유형별 규모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가계의 96.8%가 수시입출금 저축을 보유하고 있었고, 수시입출금 저축규모는 부채액계층에서 4분위에 속한 가계가 1,10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부채 가계가 49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부채액계층별 보유율을 분석한 결과 1분위 가계가 98.5%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수시입출금 저축을 보유한 가계의 평균액을 살펴보면, 보유율이 가장 적은 4분위 가계에서 1,145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나타냈고, 무부채가계가 513만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적립식저축은 전체가계의 46%가 보유하고 있었고, 규모는 4분위 가계가 1,104만원, 무부채 가계가 159만원으로 나타나 4분위 가계와 무부채가계 간에 약 6.9배의 차이가 있었다. 보유율은 1분위, 4분위 가계가 52.2%, 50.3%로 높았고, 무부채 가계가 25.3%로 가장 낮았다. 보유가계 평균액은 4분위 가계가

2,20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무부채가계가 63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저축성보험은 전체가계의 73%가 가지고 있었고, 4분위 가계가 1,773만원, 무부채 가계가 338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저축성보험의 보유율은 4분위 가계가 82.8%로 가장 높았고, 무부채가계가 37.1%로 가장 낮았으며, 보유가계의 평균액 역시 4분위 가계가 2151만원으로 가장 높고, 무부채가계가 92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목돈예치저축의 경우 전체 보유율이 37.7%였으며, 저축규모는 4분위 가계가 2537만원, 무부채 가계가 1552만원이었다. 부채액계층별 보유율은 1분위 가계가 45.9%로 가장 높았으며, 보유가계의 평균액은 1분위 가계가 4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체가계의 보유율이 26.2%이었고, 규모로는 4분위 가계가 132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월세보증금 보유가계의 평균액은 4분위가 691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부채가계가 1646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채액계층별로 금융자산유형별 구성비를 비교해본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입출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계층은 무부채가계(34.6%)였으며 가장 낮은 가계는 4분위 가계(18.2%)였다. 적립식저축의 경우 3분위, 4분위 가계가 각각 10.8%, 10.7%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무부채가계가 4.7%로 가장 적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보험 유형 역시 3분위, 4분위 가계가 비중이 높았고 무부채가계가 비중이 가장 낮았다. 목돈예치저축 유형은 1분위, 무부채가계가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고, 4분위 가계는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전·월세보증금 유형의 비중은 무부채가계가 22.7%로 가장 높았으며 3분위, 4분위 가계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무부채가계 계층 내에서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수시입출금, 전·월세보증금, 목돈예치저축이 높은 편이었고 주식·채권과 갯돈불입금은 낮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부채 1분위 계층은 저축성보험, 목돈예치저축, 수시입출금의 비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갯돈불입금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채 2분위 계층의 경우, 저축성보험, 전·월세보증금, 수시입출금 저축의 비중이 높았으며, 부채 3분위와 4분위 계층에서는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갯돈불입금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본 연구를 통해 부채액계층별 금융자산구성을 비교해본 결과, 부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4분위 가계의 경우, 저축성보험, 적립식저축, 주식·채권의 보유율이 높았고, 수시입출금 저축, 목돈예치저축, 전·월세보증금의 보유율이 낮았다. 반면에 무부채가계는 수시입출금 저축, 전·월세보증금, 목돈예치저축의 비중이 높았고 적립식저축, 저축성보험, 주식·채권의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부채액계층에 따라 금융자산유형별 보유가계의 평균보유액을 살펴본 결과, 주식·채권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에서 부채 4분위 가계가 유의하게 많은 금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자산과 부채의 상호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무부채가계는 주식·채권의 보유율은 가장 낮은 반면, 보유액은 4분위 가계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서, 향후 연구에서 무부채가계의 투자행동에 대한 연구가 흥미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